보성 벌교에 월세 1만원 '전남형 만원주택' 들어선다

18일 청년·신혼부부 대상 입주 자격·운영계획 안내 설명회
최대 10년 거주 가능…벌교읍 회정리 일원에 2028년 완공

보성군 벌교읍에 월세 1만원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들어선다. 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 파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운영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입주 자격과 신청 절차는 물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공급계획, 주택 유형과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최소 4년부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2028년 완공 예정인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 ▲최대 1080만원의 출산장려·양육비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부부당 100만원)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더불어, ▲보성 청년 온라인 화상 영어교육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등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등을 촘촘히 확대해 왔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보성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과 예비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고흥의 두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가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들이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 큰 호응

2024년 시작…4기째 운영 중
서울·경기·전남 등 12세대 거주

고흥군의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기째 운영 중인 '고흥스테이'는 지난 7월 시작해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전남 등 전국에서 찾아온 12세대 45명이 고흥에 머물며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군은 입주자들에게 3개월간 주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고흥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8월에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편백나무 독서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입주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이라 걱정도 있었지만, 아이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다음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흥을 처음 접한 도시민들이 고흥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흥스테이가 고흥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하반기 교육 시작

5회 20시간 이론 교육·현장 실습

곡성군이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창의적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제15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의 하반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농업반 교육생 33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8회 80시간의 상반기 교육을 이수했으며, 7~8월 방학을 마친 뒤 지난 9월 11일부터 다시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11월까지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은 총 5회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9월에는 각종 사업계획서 및 공모서 작성 방법 이론 교육, 10월에는 농업박람회 현장 견학, 11월에는 사업계획평가회와 졸업식을 끝으로 모든 교육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매년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다음 연도 농업 CEO 육성 기반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역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다수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올해로 14주년을 맞았으며, 지금까지 14개 과정 6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올해 제15기 스마트농업반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의 스마트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곡성군이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곡성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하반기 교육을 추진한다. 명품농업대학 수업 모습.

구례군 간전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약계층 1가구 생활 환경 정비

구례군 간전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일, 관내 취약계층 1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대상 가구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로 장기간 청소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복지기동대와 협의체 위원들은 주방과 거실 정리, 오래된 생활쓰레기 수거, 위생 청소 등 대대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간전면 복지기동대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더 많은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전면은 다양한 민·관 자원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청 요트팀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470급 혼성 2인승 우승

여수시청 요트팀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70급 혼성 2인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거제시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후원한 국내 대규모 요트대회로, 여수시청 소속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탁월한 기량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 결과로 김창주·이경진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을 확정 지었다.

이 같은 성과는 꾸준한 훈련과 체계적인 지원의 결실로, 앞으로 두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과 여수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우리 시 소속 선수들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여수시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며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청 요트팀 김창주·이경진(왼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선수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70급 혼성 금메달을 수상했다.

광양시 오션마켓 페스티벌 수산물 직거래 장터

18~20일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
공연·체험 등 즐길거리도 다양

광양시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광양수산물유통센터 1층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전라남도 수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광양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주)강동유통이 주관한다.

행사 기간 동안 도매시장 수산물 전 품목이 최대 20% 할인 판매되며, 양질의 수산물로 구성된 명절 선물세트도 함께 선보여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아쿠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지역과 상생하는 장터 운영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재 광양시 철강항만과장은 "이번 행사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문화행사와 연계된 장터 운영을 통해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해양수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도심 청년 축제의 장 열린다

19일부터 이틀간 '주말의 광장'
콘텐츠 놀이터·플리마켓 등 열려

순천시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연향동 패션의거리 일원에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젊은이들의 해방구)'을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과 맞물려, 청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됐다. 지난 6월 시민로와 8월 문화의거리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시민들의 큰 반응을 얻은 데 이어, 9월은 '청년'을 테마로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주말의 광장 트레이드마크는 단연 '잔디로드'로, 평범한 연향동 거리를 싱그러운 초록빛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여기에 순천시 대표 캐릭터 루미의 10m 대형 조형물과 포토존이 더해져, SNS 핫플레이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콘텐츠는 엔딩로드쇼, 캐릭터 팝업&전시, 크리에이터존으로 구독자 수백만 명을 자랑하는 '춤추는 곰돌의 랜덤댄스'와 '국가대표 팔씨름 선수 홍지승'이 직접 참여하는 팔씨름 도전 무대가 열려 시민들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펌프, 하키 등 오락실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콘텐츠 놀이터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플리마켓, 그리고 먹거리 부스까지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재미 요소가 총출동한다. 거리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댄스 무대가 이어지며, 도심 한복판이 청년들의 에너지로 꽉 채워진다.

주말의 광장은 지역 상권을 키우고 도로를 차별화된 브랜드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도시 축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의 날을 맞아 도심 한복판에서 청년들이 직접 놀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순천은 청년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